

석사학위 논문

중등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연구

-회화표현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방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옥 진

2003년 4월

# 중등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연구

-회화표현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방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제출자 김 옥 진



김옥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3년 월 일

심사 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 중등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연구

(회화 표현을 중심으로)

김 욱 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방 희

회화 학습에 있어서 창의력 신장은 미술의 본질면에서 볼 때 필요 불가결한 문제라고 판단되어 여러 가지 표현 활동 중 회화의 표현 활동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미술교육은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 현실에 있어서는 창의력 증진을 위한 과정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본다. 더욱이 중등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지적 영역에 치중한 결과 학생들이 저마다 연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학습 활동보다는 오히려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에 따른 입시 위주의 지식 전달에 급급해 온 실정이다.

미술교육에 있어서 창작 활동은 무형적인 사고와는 달리 조형 활동이므로 작업 과정과 순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그에 앞서 개인의 창작 의욕을 표출하는 동기 유발의 단계가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된다. 창의력 개발은 특정한 동기와 의지적인 창작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미술교육이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논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예술에 의한 교육의 본래적 사명을 미술교육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다.

본 연구는 제주전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행 미술교육의 실태를 파악, 분석함으로써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작성된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보면 미술교육은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더불어 자발성을 자극하여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효과로써 특별한 동기나 경험이 없으면 창의성은 쉽게 진전되지 못한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곧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다. 이런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성적인 생각과 경험, 인간적인 가치가 존중될 때, 창의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결과로 지금의 회화 교육은 비개성적인 기법의 전수에 그치고 마는 경향이 짙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심미적, 심정적 표현지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실험을 통한 연구가 교육현장에 활용이 되고 나아가 창의력 신장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본 논문은 2003년 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	2
II. 회화표현의 이론적 배경 .....	4
1. 회화지도의 교육적 의의 .....	4
2. 미술교육의 성격과 특성 .....	5
3. 회화교육 과정지도의 목표와 내용 .....	6
4. 각 영역별 지도 목표 .....	6
III. 회화표현의 실태조사 및 분석 .....	11
1. 설문분석 설정과 조사 및 분석 방법 .....	11
2. 설문 결과 분석 .....	12
IV. 회화지도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방안 .....	37
1. 자기 표현에 따른 미술수업 .....	38
2. 다양한 재료활용 지도법 .....	40
3. 창의적 발상지도 .....	42
V. 결 론 .....	45
참고문헌 .....	47
영문초록 .....	49
설문지 .....	51

## 표 목 차

<표 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	12
<표 2> 미술시간의 흥미정도 .....	13
<표 3> 미술시간이 즐거운 이유 .....	14
<표 4> 미술시간이 즐겁지 않은 이유 .....	15
<표 5> 미술학습의 이점 .....	16
<표 6> 미술수업에서 중요한 요소 .....	17
<표 7> 미술 평가요소 .....	18
<표 8> 미술교육의 인성발달과 창의성 발달의 필수 교과로의 인식여부 .....	19
<표 9> 미술시간에 재미있었던 단원 .....	20
<표 10> 회화 영역의 중요성 정도 .....	21
<표 11> 회화표현 영역이 미술활동의 기초과정인가 .....	22
<표 12> 회화표현 영역이 미술활동의 기초과정이라 생각하는 이유 .....	23
<표 13> 회화영역이 미술공부에 미치는 영향 .....	24
<표 14> 교과서에 나타난 회화표현 내용에서의 참고 작품의 적절성 .....	25
<표 15> 교과서에 나타난 회화표현 내용의 이해정도 .....	26
<표 16> 회화 표현 중 관찰표현에 있어 재미있는 부분 .....	27
<표 17> 회화 표현 중 구상표현에 있어 재미있는 부분 .....	28
<표 18> 미술시간의 작품구상 및 완성방법 .....	29
<표 19> 작품의 주제선정 방법 .....	30
<표 20> 타인의 작품 평가방식 .....	31
<표 21> 색다른 작품에 대한 느낌 .....	32
<표 22> 자화상 그리는 방법 .....	33
<표 23> 색채 사용시 색 선택 방법 .....	34
<표 24> 가장마음에 드는 시청각 자료 .....	35
<표 25> 미술시간 재료 준비방법 .....	36
<표 26> 학습의도에 따른 재료활용 지도 방법 .....	4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과학 기술의 고도한 발달은 산업 사회를 가속화 시켰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물질적 생활은 한층 더 풍요로워졌으나 반면에 정서 생활은 더욱 메말라가고 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지식과 기능, 물질 만능의 파행적인 가치관을 조장하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창조적 정신 능력이나 정서적 가치를 등한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주의적 가치의 지향이 오히려 인간성 상실의 위기를 조성했다고 할 수 있다. 미술교육은 미술적인 표현이나 기술만을 가르치기 위한 기능교육이 아니라 ‘인간교육’의 관점에서 풍부한 미적 감수성과 창조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감각적, 현상학적, 직관적 체험을 통해 터득해 나가는 정서 교과이므로 점차 기계화되고 도구화되어 가는 오늘날의 교육 현실에서 인간의 사고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면이 중요한 만큼 직관의 세계를 길러주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일일 것이다. 특히 모든 사물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능력과 시각적 대상을 새로운 차원에서 표현할 수 있는 창의력 계발은 미술 교육의 핵심이기도 하다.<sup>1)</sup>

‘창의성 계발’은 미술교과가 지니고 있는 특수한 기능으로, 미술교과의 중요성이 라든지 미술교과의 가치를 말할 때 가장 강조되고 있다. 창의성이란 일반적으로 독창성, 창조적 재능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것은 경험의 재생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의 방법과 태도를 말하며, 생산적 사고나 확산적 사고에 의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산출이나 새로운 유형의 사고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창의성은 개성의 표현에서 비롯된다. 외부의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자신만의 독창적 재능으로써 생각하고 표현해 내는 것이다. 창의성은 다른 것의 모방이 아닌 자기 자신만의 독창적인 개성에서 계발되어질 수 있으며, 자신만의 생각, 느낌,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는 개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

1) 李寧珍, 「美術教育에 있어서 創意的인 動機誘發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p.1.

인간은 예술적 문화 유산과 생활 양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식하게 되며 창의적 능력을 확장시킨다. 창의성 계발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원천이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앞서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이기도 하다. 창의성의 계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술교육의 가치는 재평가되어야 한다.

## 2.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에 의해 전개하기로 한다. 먼저 「중등 미술교육에 있어서 창의력 신장을 위한 연구」라는 주제를 설정한 후 그 연구에 대한 계획을 하였다. 연구에 관계되는 미술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회화표현 지도에 접근하여 수업지도상의 한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된 논문과 각 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자료를 분석, 종합해 보고 나름대로 정리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는 제주도 전지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의 체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모델과 같으며 문헌연구에서는 먼저 현행 중등 미술 교과서를 중심으로 회화 표현의 내용과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이 학생들의 미적 감수성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현장수업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 1) 연구 도구

문헌, 회화표현지도 수업안, 중등학교 미술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설문지

### 2) 자료 처리

① 회화표현 지도와 관련된 문헌을 수집 분석하여 회화 표현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필요성을 발견하고, 현행교과서에 나타난 회화표현 지도의 모델을 분석 종합하였다.

② 설문 조사지를 배부 정리하여 현행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회화 표현 영역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회화표현 수업 방법을 제시하였다.





## II. 회화 표현의 이론적 배경

### 1. 회화지도의 교육적 의의

회화는 미술표현 영역 중 가장 기초가 되며 미술교육 활동의 원동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즉, 그만큼 회화는 다른 영역에 비하여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회화를 제작할 경우에 있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회화의 표현에는 온갖 형식이 있는 것이며 또 재료나 기법도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sup>2)</sup>

회화는 개인의 정신의 반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계 사물의 인지가 그 기초가 되어 있다. 회화의 표현 방법으로 사물을 보며 표현하는 사생, 또는 관찰하여 그리는 방법이 있고 기억, 상상, 환상, 꿈에 의한 표현, 즉 상화(想畵)가 있다. 그러나 모두 그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을 외계의 상물(想物)을 시각적으로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생화는 관찰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행하는 지각이며 대상물에 대한 연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회화 활동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회화의 조형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회화에 학생들의 사상과 감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그에 따른 관찰 표현의 과정에서의 재료나 기법 형식 등을 살펴보고, 구상 표현에서의 창의력 신장을 가져오는 형식, 재료, 기법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면서 작품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며, 많은 가능성 속에서 단념과 선택을 되풀이하며 작품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

2) 金三郎, 「美術 教育 概論」, 서울 :미진사, 1992, p.167.

## 2. 미술교육의 성격과 특성

미술은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 조형 언어를 통하여 창조, 변화시켜 나가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또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미술 교과 교육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형성-조형성은 미술행위의 기본으로 형태를 낳게 하는 필연적인 행위이다. 즉, 조형 요소를 구성하여 형태를 만드는데 있어 재료나 용구를 다루는 기능과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술 교육은 조형적인 활동을 통해 미의식을 심화하고 미적 감동을 느끼게 하며, 조형의 질서를 알게 해 준다.

2) 창의성- 창의성은 잠재적인 감정을 최대한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창조적인 활동은 사람마다의 독창성 및 풍부한 상상력을 형태화하는 표현과 결합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잠재적인 형태에 질서를 부여하고 구체화하여 나타내 보이는 것이 창조인 것이다. 창조에는 개인의 감정과 사고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 점에서 개성의 신장과도 연결지을 수 있다. 특히 미술 교육은 자기만의 자유롭고 새로운 독창적인 표현, 즉 창의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표현을 무엇보다도 존중하고 그것을 기본적인 성격으로 한다. 미술은 수동적인 수용 활동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표현활동으로, 미술 활동 그 자체가 창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3) 정서성-정서성은 미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길러진다. 미술 교육은 아름다운 대상에 자주 접하게 하여 미적 감정을 예민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며, 정서를 순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준다. 시각적 경험에 의하여 미적 정서를 기르고 미적 가치관을 확립하며, 나아가 원만한 인간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다.<sup>3)</sup>

---

3) 임현진 「미술교사용 지도서」, 교학사,p.8

### 3. 회화 교육과정의 지도 목표와 내용

#### 1) 교과 목표

조형활동을 경험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게 한다.

가)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 생활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며,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동기유발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활동과 능동적인 표현 활동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다)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 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미술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나 판단을 존중하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도록 한다. 또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전통 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미술 문화 창조에 기여하도록 한다.4)

### 4. 각 영역별 지도 목표

#### 1) 관찰 표현

##### (1) 소묘

소묘는 모든 조형활동의 기초로서 끊임없이 수련을 쌓아 묘사력을 길러야 하는 단원으로 특히 물체의 기본적인 형체를 관찰하도록 하여 평면과 입체의 다른 점을

---

4)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p.6

이해시키고, 여러 가지 소묘 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거두면서 소묘의 예술적 표현에 흥미와 묘사력 신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묘 그 자체의 예술성을 인지하고 인물, 풍경, 정물의 소묘 작품을 창작하게 한다.

〈지도목표〉

- 석고테셀을 통하여 사물을 바로 보는 관찰력과 표현력을 기른다.
- 소묘를 통하여 물체의 형과 명암, 비례와 균형, 운동감과 질감 등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힘을 기른다.
- 여러 가지 소묘 재료의 장점을 살려 표현 효과를 살리는 기능을 기른다.
- 다양한 소묘기법의 경험을 통하여 소묘에 의한 표현력을 신장시킨다.

(2) 풍경화

자연을 마주 대하여 풍경을 그려보는 일은 자연에 대한 관찰력과 풍경 표현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동시에 풍경화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표현에 있어서도 객관적 사실 묘사에만 치우치지 않고, 자연에서 얻은 아름다운 충동과 감동을 느낀대로 나타내는 표현력을 신장시키도록 하였다

〈지도목표〉

- 표현하고자 하는 풍경의 근경, 중경, 원경을 정하고 그것을 화면에서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풍경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나 감흥의 표현 방법을 연구한다.
- 계절의 느낌을 살려 재료와 용구의 성질을 살려 자기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3) 정물화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형태의 단순화, 변형, 강조 등 주관적 처리를 통해 미적 감각을 순화하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소재를 찾아 대상을 정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델을 배치하여, 주관과 개성을 살리는 표현 방법을 연구하여 조형적 정서를 충동한다.

〈지도목표〉

- 주변의 물건들이 우리의 미적 감정을 움직이게 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 통일과 변화를 갖춘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계획하는 능력을 기른다.

-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배치하여 봄으로써 균형감과 공간감을 익히고 짜임새 있는 구도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4) 인물화

인물화는 대상에서 느끼는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생활이 느껴지도록 표현해야 하며, 작가의 주관도 강하게 표출되어야 한다. 인물화를 그릴 때에는 자세와 표정, 동세와 비례 등을 생각해서 표현해야 대상의 개성을 살려 생동감 있는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

##### 〈지도목표〉

- 인물의 비례, 동세, 양감 등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알맞게 표현한다.
- 인물의 자세나 표정을 생각하여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인물화를 표현한다.
- 계획한 일이 효과적으로 표현되도록 구도, 묘법 등을 연구한다.

#### (5) 수묵화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해 한국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민족 전통의 예술인 한국화의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기법을 바탕으로 시대 감각에 맞는 풍경을 표현하면서, 묘법, 점법, 준법, 운필법 등 한국화의 기본적인 기법을 익히게 되며, 산수, 풍경의 구성적 표현을 하게 된다. 또 전통적인 수묵화를 보면서 조상들의 열과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수묵화의 다양한 기법을 응용하게 하여 표현 의욕을 북돋우어 주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정서를 표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지도목표〉

- 한국화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하고 그 표현력과 감상력을 기른다.
-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한국화 기법을 익히고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기법을 창조하는 태도와 기능을 기른다.
- 수묵화의 기법을 창의적으로 연구하는 태도를 갖는다.

#### (6) 판화

판화의 실용성이 날로 늘어나는 요즘 판화의 예술성과 더불어 실용적 활용에도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처리에 의해 표현되는 판화이므로 보다 치밀한 계획성과 용구의 공동 사용, 질서 유지 등 고도의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판을 찍어서 표현되는 판화 제작은 제판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작품 효과는 찍어냄으로써 한꺼번에 나타나는 즐거움이 각별하며 판재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 재질감도 다양하다. 재질감을 살려 효과를 내는 일은 판화의 제작에 있어서 중요하다.

〈지도목표〉

- 판화의 특징, 종류, 제작방법 등을 이해하며, 좋은 주제를 찾아서 표현 계획을 세우고,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재미있는 판화를 표현한다.
- 상호 협력하여 제작하며, 자율적으로 작업 질서를 유지하는 협동정신 기른다.

## 2) 구상 표현

### (1) 경험화

생활 경험이라 함은 가정이나 학교, 사회의 일상 생활 속에서 보거나 듣거나 체험한 일을 말한다. 이러한 것을 소재로 표현한 그림은 생활화, 경험화, 기억화 등으로 부르는 구상표현으로서 관찰의 바탕 위에 표현 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현장 스케치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다양한 소재를 구상 표현해 봄으로써 더욱 신장된 구성력과 묘사력을 바탕으로 조형적 처리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지도목표〉

- 실제 경험을 통해서 작품을 구상하게 하여 그림이 개념적으로 흐르지 않게 하며 의도하는 대로 화면을 구성하고 주제의 성격에 맞추어 배색하는 능력을 기른다.
- 표현의 방법을 새롭게 찾아내어 창조의 기쁨을 맛보도록 한다.

### (2) 심상화

머리 속에 떠오르는 환상적인 이미지나 공상 또는 꿈같은 비현실적인 세계를 회화로 표현해 봄으로써 창의적 표현의 새로운 조형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하며, 합리성도 고정 관념도 필요 없는 상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그려봄으로써 갇혔던 마음을 터주고, 맺혔던 마음을 풀어 주며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 주도록 한다.

<지도목표>

- 생각했던 일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배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환상적인 표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는 태도를 기른다.

(3) 추상화

추상화는 20세기 현대 미술이 낳은 창조물이다. 점, 선, 면 그리고 색으로 또 하나의 조형 언어를 찾아 낸 것이다. 추상 화가들은 이 언어를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며 의사를 전달하였다. 추상화를 이해하고 추상적 표현 요소에 의하여 화면을 구성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한다.

<지도목표>

- 추상 회화의 발달 과정과 조형적 의의를 이해한다.
- 추상화에 의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에 의하여 추상적 표현을 해 본다.

(4) 여러 가지 표현 방법

현대 미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재료 표현의 개방과 기법의 다양화이다.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창안이 요구되는 본 내용은 감각의 현대성을 기르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지도목표>

- 새로운 재료와 기법으로 작품을 만들게 하여 창의력을 기르게 한다.
- 새로운 표현 재료와 기법에 의해 독특한 효과를 살려 작품을 제작하는 기능을 기른다.<sup>5)</sup>

이상과 같이 각 영역별 지도 목표를 살펴보았다. 각 교과서마다 지도 목표는 다르지만 주로 공통된 내용을 일선 교사들은 교과목표를 정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료와 기법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좀 더 효율적인 회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5) 김태, 최기원, 문상렬, 「미술교사용 지도서」, 금성출판사, p.24~47

### Ⅲ. 회화표현의 실태조사 및 분석

#### 1. 설문 분석 설정과 조사 및 분석 방법

##### 1) 설문 분석 설정

본 설문지는 크게 4개의 주요 시각으로 설문을 하였다. 첫째는 미술교과에 대한 제주도내 학생의 미술에 대한 흥미도이며, 둘째는 미술교육이 인성발달과 창의성 발달의 필수교과로서의 인식 여부인가를 분석하고, 셋째는 회화 표현 영역이 미술활동의 중요성정도, 넷째는, 작품의 주제 설정 및 미술시간 재료준비 방법에 대해서 분석 조사하였다.

##### 2) 조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제주도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통계 처리에서 제외시켰으며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빈도분석,

$\chi^2$ (Chi-square)검정을 활용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했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설문결과 분석

<표 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성 별	남	202	45.3
	여	244	54.7
중·고등학교	중 학 교	328	73.5
	고 등 학 교	118	26.5
소 재 지	제 주 시	149	33.4
	북·남제주군	147	33.0
	서귀포시	150	33.6
Total		446	100.0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45.3%, 여학생이 54.7%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으며, 학교에 대해서는 중학교 학생이 73.5%, 고등학교 학생이 26.5%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이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교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33.4%, 북·남제주군이 33.0%, 서귀포시가 33.6%로 나타나 비교적 지역적으로 비슷한 수로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미술시간의 흥미 정도

구 분		즐겁다	보통이다	즐겁지 않다	Total	$\chi^2(p)$
성별	남	109	71	21	201	64.081*** (.000)
		54.2%	35.3%	10.4%	100.0%	
	여	45	135	63	243	
		18.5%	55.6%	25.9%	100.0%	
중·고 등학교	중 학교	112	160	54	326	5.536 (.063)
		34.4%	49.1%	16.6%	100.0%	
	고등학교	42	46	30	118	
		35.6%	39.0%	25.4%	100.0%	
소재지	제 주 시	50	75	23	148	15.512** (.004)
		33.8%	50.7%	15.5%	100.0%	
	북·남제주군	37	78	31	146	
		25.3%	53.4%	21.2%	100.0%	
	서귀포시	67	553	30	150	
		44.7%	35.3%	20.0%	100.0%	
Total		154	206	84	444	
		34.7%	46.4%	18.9%	100.0%	

학생들의 미술 수업시간의 흥미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미술수업시간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즐겁다가 34.7%, 즐겁지 않다가 18.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학생들은 미술수업시간을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미술 수업시간 흥미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은 미술수업시간이 즐겁다고 응답한 학생이 54.2%, 여학생은 미술수업시간이 보통이라고 느끼는 학생이 55.6%로 응답하여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미술수업시간에 더 흥미가 있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와 북·남제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50.7%와 53.4%, 서귀포시에 소재한 학교 학생은 즐겁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4.7%로 나타나 제주시와 북·남제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미술수업시간을 그저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미술수업시간을

즐겁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p < .01$ ). 학교현황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표 3> 미술시간이 즐거운 이유

구 분		적성에 맞아서	점수를 잘주어서	실기가 많아서	내용이 재밌어서	Total	$\chi^2(p)$
성 별	남	17 15.6%	10 9.2%	34 31.2%	48 44.0%	109 100.0%	.914 (.822)
	여	9 20.0%	4 8.9%	11 24.4%	21 46.7%	45 100.0%	
중·고 등학교	중 학 교	20 17.9%	11 9.8%	33 29.5%	48 42.9%	112 100.0%	.828 (.843)
	고등학교	6 14.3%	3 7.1%	12 28.6%	21 50.0%	42 100.0%	
소재지	제 주 시	11 22.0%	5 10.0%	13 26.0%	21 42.0%	50 100.0%	4.207 (.649)
	북·남 제 주 군	8 21.6%	3 8.1%	9 24.3%	17 45.9%	37 100.0%	
	서귀포시	7 10.4%	6 9.0%	23 34.3%	31 46.3%	67 100.0%	
Total		26 16.9%	14 9.1%	45 29.2%	69 44.8%	154 100.0%	

미술시간이 즐거운 이유에 관한 문항에서는 내용이 재밌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4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실기가 많아서가 29.2%, 적성에 맞아서가 16.9%,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서가 9.1%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술시간이 즐거운 이유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내용이 재밌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두 경우도 모두 내용이 재밌다는 문항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학교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제주도, 북·남제주군, 서귀포시 모두 내용이 재밌다는 문항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나타났다( $p > .05$ ). 본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미술과목이 실기가 많고 실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어서 부담이 없이 재미있게 할 수 있어서라고 볼 수 있다.

<표 4> 미술시간이 즐겁지 않은 이유

구 분		준비물이 많아서	경제적 부담	평가에 불만	실기 부족	기타	Total	$\chi^2(p)$
성 별	남	3 15.0%		2 10.0%	11 55.0%	4 20.0%	20 100.0%	5.812 (.214)
	여	6 9.5%	6 9.5%	9 14.3%	20 31.7%	22 34.9%	63 100.0%	
중·고 등학교	중 학 교	7 13.2%	6 11.3%	8 15.1%	18 34.0%	14 26.4%	53 100.0%	6.106 (.191)
	고등학교	2 6.7%		3 10.0%	13 43.3%	12 40.0%	30 100.0%	
소재지	제 주 시	3 13.0%	2 8.7%	5 21.7%	7 30.4%	6 26.1%	23 100.0%	7.283 (.506)
	북·남 제 주 군	4 12.9%	3 9.7%	5 16.1%	11 35.5%	8 25.8%	31 100.0%	
	서귀포시	2 6.9%	1 3.4%	1 3.4%	13 44.8%	12 41.4%	29 100.0%	
Total		9 10.8%	6 7.2%	11 13.3%	31 37.3%	26 31.3%	83 100.0%	

미술교육이 즐겁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실기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37.3%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31.3%, 평가에 불만족하다가 13.3%, 준비물이 많아서가 10.8%,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서가 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미술교육이 즐겁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실기가 부족하다에 응답이 많이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기타에 응답 수가 많이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모두 실기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학교 소재지별로도 실기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 본 질문에서는 학생들이 실기수업을 많이 원하고 있어 수업시수를 늘리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표현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준비물과 경제적인 부담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미술학습의 이점

구 분		창의적 인생활	풍요로 운 삶	미적감 각향상	정서 순화	기타	Total	$\chi^2(p)$
성 별	남	80	14	55	36	17	202	9.811* (.044)
		39.6%	6.9%	27.2%	17.8%	8.4%	100.0%	
	여	74	6	82	46	27	235	
		31.5%	2.6%	34.9%	19.6%	11.5%	100.0%	
중·고 등학교	중 학 교	108	15	106	61	31	321	2.216 (.696)
		33.6%	4.7%	33.0%	19.0%	9.7%	100.0%	
	고등학교	46	5	31	21	13	116	
		39.7%	4.3%	26.7%	18.1%	11.2%	100.0%	
소재지	제 주 시	52	9	46	29	12	148	10.728 (.218)
		35.1%	6.1%	31.1%	19.6%	8.1%	100.0%	
	북·남 제 주 군	41	5	45	26	22	139	
		29.5%	3.6%	32.4%	18.7%	15.8%	100.0%	
서귀포시	61	6	46	27	10	150		
	40.7%	4.0%	30.7%	18.0%	6.7%	100.0%		
Total		154	20	137	82	44	437	
		35.2%	4.6%	31.4%	18.8%	10.1%	100.0%	

미술학습이 학생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느냐에 관한 질문에서는 창의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35.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미적 감각이 향상 된다는 31.4%, 정서순화에 18.8%, 기타에 10.1%, 풍요로운 삶에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미술학습의 이점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남학생은 창의적인 생활에 39.6%, 여학생은 미적 감각향상에 34.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5$ ). 중·고등학교 모두 창의적인 생활에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창의적인 생활에, 북·남제주군은 미적 감각향상에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났으나,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남학생은 실생활에서 창의적인 부분을 관찰하고 여학생은 미적인 생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 실생활에 미술학습이 잘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미술수업에서 중요한 요소

구 분		창의성	새로움	작품의 성실성	작품의 완성도	준비성	기타	Total	$\chi^2(p)$
성별	남	104	12	32	25	19	10	202	13.800* (.017)
		51.5%	5.9%	15.8%	12.4%	9.4%	5.0%	100.0%	
	여	125	11	61	32	7	8	244	
		51.2%	4.5%	25.0%	13.1%	2.9%	3.3%	100.0%	
중· 고등 학교	중학교	171	19	56	44	24	14	328	14.873* (.011)
		52.1%	5.8%	17.1%	13.4%	7.3%	4.3%	100.0%	
	고 등 학 교	58	4	37	13	2	4	118	
		49.2%	3.4%	31.4%	11.0%	1.7%	3.4%	100.0%	
소 재 지	제주시	71	9	33	16	13	7	149	14.405 (.155)
		47.7%	6.0%	22.1%	10.7%	8.7%	4.7%	100.0%	
	북·남 제주군	73	9	29	25	3	8	147	
		49.7%	6.1%	19.7%	17.0%	2.0%	5.4%	100.0%	
서귀 포시	85	5	31	16	10	3	150		
	56.7%	3.3%	20.7%	10.7%	6.7%	2.0%	100.0%		
Total		229	23	93	57	26	18	446	
		51.3%	5.2%	20.9%	12.8%	5.8%	4.0%	100.0%	

미술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관한 문항에서는 창의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1.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작품의 성실성이 20.9%, 작품의 완성도가 12.8%, 준비성이 5.8%, 새로움이 5.2%, 기타가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 $p < .05$ ).

성별에 따라 미술수업에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창의성에 51.5%, 51.2%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중·고등학교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모두 창의성에 52.1%, 49.2%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 $p < .05$ ). 학교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북·남제주군, 서귀포시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p > .05$ ). 모든 학생들이 창의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표현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분방한 사고활동을 도와 창의성 형성에 연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7> 미술평가요소

구 분		창의성	표현력	성실	교사와의 친밀도	기타	Total	$\chi^2(p)$
성별	남	54	66	71	5	6	202	14.434** (.006)
		26.7%	32.7%	35.1%	2.5%	3.0%	100.0%	
	여	57	109	53	11	13	243	
		23.5%	44.9%	21.8%	4.5%	5.3%	100.0%	
중·고등학교	중학교	89	127	82	15	15	328	9.777* (.044)
		27.1%	38.7%	25.0%	4.6%	4.6%	100.0%	
	고등학교	22	48	42	1	4	117	
		18.8%	41.0%	35.9%	.9%	3.4%	100.0%	
소재지	제주시	40	60	43	2	4	149	24.685** (.002)
		26.8%	40.3%	28.9%	1.3%	2.7%	100.0%	
	북·남제주군	29	70	30	11	6	146	
		19.9%	47.9%	20.5%	7.5%	4.1%	100.0%	
서귀포시	42	45	51	3	9	150		
	28.0%	30.0%	34.0%	2.0%	6.0%	100.0%		
Total		111	175	124	16	19	445	
		24.9%	39.3%	27.9%	3.6%	4.3%	100.0%	

미술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관한 질문에서는 표현력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9.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성실이 27.9%, 창의성이 24.9%, 기타가 4.3%, 교사와의 친밀도가 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술을 평가할 때 중요 요소에 대해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성실에 35.1%, 여학생의 경우 표현력에 44.9%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났다( $p < 0.01$ ). 중·고등학교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모두 표현력에 각각 38.7%, 41.0%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났다( $p < .05$ ). 학교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와 북·남제주군에서 40.3%와 47.9%로 가장 많은 응답하고 서귀포시에서는 성실에 34.0%로 가장 많은 응답수가 나타났다( $p < 0.01$ ). 미술교과는 절대적으로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 미술에서 개인차는 결코 서열을 줄 수가 없으며, 개인차를 인정하여 개인별로 표현 및 감상능력 즉 미적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학생은 표현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사는 성실성, 작품에 대한 애착심을 먼저 평가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일부는 교사와의 친분도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8> 미술교육이 인성발달과 창의성 발달의 필수 교과로의 인식 여부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 다	전혀 그렇지 않다	Total	$\chi^2(p)$
성별	남	24	85	70	9	14	202	9.098 (.059) df=4
		11.9%	42.1%	34.7%	4.5%	6.9%	100.0%	
	여	18	84	113	16	13	244	
		7.4%	34.4%	46.3%	6.6%	5.3%	100.0%	
중· 고등 학교	중학교	28	123	134	19	24	328	4.426 (.351) df=4
		8.5%	37.5%	40.9%	5.8%	7.3%	100.0%	
	고 등 학 교	14	46	49	6	3	118	
		11.9%	39.0%	41.5%	5.1%	2.5%	100.0%	
소 재 지	제주시	16	57	54	6	16	149	12.256 (.140) df=8
		10.7%	38.3%	36.2%	4.0%	10.7%	100.0%	
	북·남 제주군	13	51	66	10	7	147	
		8.8%	34.7%	44.9%	6.8%	4.8%	100.0%	
	서귀 포시	13	61	63	9	4	150	
8.7%	40.7%	42.0%	6.0%	2.7%	100.0%			
Total		42	169	183	25	27	446	
		9.4%	37.9%	41.0%	5.6%	6.1%	100.0%	

미술이 인성발달과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가에 관한 질문에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41.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렇다가 37.9%, 매우 그렇다가 9.4%, 전혀 그렇지 않다가 6.1%, 그렇지 않다가 5.6%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술이 인성발달과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제주시는 그렇다에, 북·남제주군과 서귀포시는 보통이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

미술교육은 미적 정서, 조화된 인간성의 육성이 교육의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의 교육은 지나치게 인지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어 ‘조화적인 인격 형성’에는 미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9> 미술시간에 재미있었던 단위

구 분		회화	조소	디자인	만화	서예	공예	기타	Total	$\chi^2(p)$
성별	남	41	39	29	42	3	14	29	197	66.388*** (.000) df=6
		20.8%	19.8%	14.7%	21.3%	1.5%	7.1%	14.7%	100.0%	
	여	43	14	58	16	5	68	36	240	
		17.9%	5.8%	24.2%	6.7%	2.1%	28.3%	15.0%	100.0%	
중·고등학교	중학교	62	40	74	44	8	50	43	321	17.512** (.008) df=6
		19.3%	12.5%	23.1%	13.7%	2.5%	15.6%	13.4%	100.0%	
	고등학교	22	13	13	14		32	22	116	
		19.0%	11.2%	11.2%	12.1%		27.6%	19.0%	100.0%	
소재지	제주시	32	13	33	22	3	22	23	148	8.669 (.731) df=12
		21.6%	8.8%	22.3%	14.9%	2.0%	14.9%	15.5%	100.0%	
	북·남제주군	25	16	30	16	2	29	22	140	
		17.9%	11.4%	21.4%	11.4%	1.4%	20.7%	15.7%	100.0%	
	서귀포시	27	24	24	20	3	31	20	149	
18.1%		16.1%	16.1%	13.4%	2.0%	20.8%	13.4%	100.0%		
Total		84	53	87	58	8	82	65	437	
		19.2%	12.1%	19.9%	13.3%	1.8%	18.8%	14.9%	100.0%	

미술시간에서 재미있었던 단위에 관한 질문에서는 디자인이 19.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회화가 19.2%, 공예가 18.9%, 기타가 14.9%, 만화가 13.3%, 조소가 12.1%, 서예가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만화가 21.3%, 여학생의 경우 공예가 28.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01$ ). 중·고등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에서는 디자인에 23.1%, 고등학교에서는 서예가 27.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1$ ). 학교 소재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의 경우 디자인이, 북·남제주군과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공예로 가장 많은 응답을 했으나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다양한 디자인 부분에 관심이 많아 선호하고 있으며 조소나 서예 영역에 대한 균형있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보인다.

<표 10> 회화영역의 중요성 정도

구 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Total	$\chi^2(p)$
성별	남	142	52	194	.327 (.568) df=1
		73.2%	26.8%	100.0%	
	여	169	70	239	
		70.7%	29.3%	100.0%	
중·고등학교	중 학교	221	97	318	3.206 (.073) df=1
		69.5%	30.5%	100.0%	
	고등학교	90	25	115	
		78.3%	21.7%	100.0%	
소재지	제주시	95	52	147	10.102 (.006) df=2
		64.6%	35.4%	100.0%	
	북·남 제주군	97	42	139	
		69.8%	30.2%	100.0%	
	서귀포시	119	28	147	
	81.0%	19.0%	100.0%		
Total		311	122	433	
		71.8%	28.2%	100.0%	

회화 영역이 미술표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냐의 질문에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71.8%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28.2%로 대부분의 학생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 학교 소재지별로 상관없이 모두 중요하고 응답하였으나,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p>.05$ ).

회화영역이 미술표현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다양한 표현 재료, 표현 소재를 사용케 하고 흥미유발을 시킴으로 스스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표 11> 회화표현 영역이 미술활동의 기초과정인가

구 분		그렇다	그렇지않다	잘모르겠다	Total	$\chi^2(p)$
성별	남	74	30	90	194	2.226 (.329)
		38.1%	15.5%	46.4%	100.0%	
	여	81	31	129	241	
		33.6%	12.9%	53.5%	100.0%	
중·고등학교	중 학교	118	45	156	319	1.120 (.571)
		37.0%	14.1%	48.9%	100.0%	
	고등학교	37	16	63	116	
		31.9%	13.8%	54.3%	100.0%	
소재지	제 주 시	49	25	74	148	20.631** * (.000)
		33.1%	16.9%	50.0%	100.0%	
	북·남 제 주 군	34	19	86	139	
		24.5%	13.7%	61.9%	100.0%	
서귀포시	72	17	59	148		
	48.6%	11.5%	39.9%	100.0%		
Total		155	61	219	435	
		35.6%	14.0%	50.3%	100.0%	

회화표현 영역이 모든 미술활동의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0.3%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는 응답이 35.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와 북·남제주군의 경우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50.0%와 61.9%로 가장 많았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001$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잘 모르겠다에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그 결과는 유의하지 않다. ( $p > .05$ ) 중·고등학교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모두 잘 모르겠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p > .05$ ). 회화표현 영역이 모든 미술활동의 기초과정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모든 미술 영역의 기초부분임을 가르치고 중요성을 인식시켜 지도한다면 학습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표 12> 회화표현 영역이 미술활동의 기초과정이라 생각하는 이유

구 분		기초과정	표현의 용이성	시작 순서상	기 타	Total	$\chi^2(p)$
성별	남	47	18	5	2	72	4.278 (.233)
		65.3%	25.0%	6.9%	2.8%	100.0%	
	여	61	10	8	2	81	
		75.3%	12.3%	9.9%	2.5%	100.0%	
중· 고등 학교	중학교	80	23	10	3	116	.800 (.849)
		69.0%	19.8%	8.6%	2.6%	100.0%	
	고 등 학 교	28	5	3	1	37	
		75.7%	13.5%	8.1%	2.7%	100.0%	
소 재 지	제주시	34	9	4		47	3.256 (.776)
		72.3%	19.1%	8.5%		100.0%	
	북·남 제주군	23	8	2	1	34	
		67.6%	23.5%	5.9%	2.9%	100.0%	
서귀 포시	51	11	7	3	72		
	70.8%	15.3%	9.7%	4.2%	100.0%		
Total		108	28	13	4	153	
		70.6%	18.3%	8.5%	2.6%	100.0%	

회화표현 영역이 모든 미술 활동의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에서는 기초과정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5.3%로 가장 많았고, 표현의 용이성이 18.3%, 학기초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과목이기에 8.5%, 기타가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모든 활동의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중·고등학교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모두 모든 활동의 기초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학교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제주도, 북·남제주군, 서귀포시 모두 모든 활동의 기초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모든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

<표 13> 회화영역이 미술공부에 미치는 영향

구 분		관찰력 향 상	창의력 향 상	실용성	기 타	Total	$\chi^2(p)$
성별	남	76	72	15	32	195	11.528** (.009) df=3
		39.0%	36.9%	7.7%	16.4%	100.0%	
	여	102	58	37	40	237	
		43.0%	24.5%	15.6%	16.9%	100.0%	
중· 고등 학교	중학교	109	110	46	51	316	27.968*** (.000) df=3
		34.5%	34.8%	14.6%	16.1%	100.0%	
	고 등 학 교	69	20	6	21	116	
		59.5%	17.2%	5.2%	18.1%	100.0%	
소 재 지	제주시	58	48	18	22	146	2.741 (.841) df=6
		39.7%	32.9%	12.3%	15.1%	100.0%	
	북·남 제주군	55	38	17	28	138	
		39.9%	27.5%	12.3%	20.3%	100.0%	
서귀 포시	65	44	17	22	148		
	43.9%	29.7%	11.5%	14.9%	100.0%		
Total		178	130	52	72	432	
		41.2%	30.1%	12.0%	16.7%	100.0%	

회화 영역이 미술공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서는 관찰력을 키운다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창의력 향상에는 30.1%, 기타에는 16.7%, 실용성에는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관찰력 향상 응답이 39.0%, 43.0%로 가장 많았다( $p < .01$ ). 중·고등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창의력 향상에 관한 응답이 34.8%, 고등학생은 관찰력 향상에 관한 응답이 59.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01$ ). 학교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와 북·남제주군, 서귀포시 모두 관찰력 향상에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p > .05$ ).

현재 교과서 참고 작품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조사도 많이 나와 다양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회화표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 개발에도 힘써야 되겠다.

<표 14> 교과서에 나타난 회화표현 내용에서의 참고작품의 적절성

구 분		좋다	안좋다	별 로 도움이 안된다	시정할 필요를 느낀다	Total	$\chi^2(p)$
성별	남	117	16	44	17	194	8.978* (.030) df=3
		60.3%	8.2%	22.7%	8.8%	100.0%	
	여	124	10	78	28	240	
		51.7%	4.2%	32.5%	11.7%	100.0%	
중· 고등 학교	중학교	169	26	86	38	319	14.119** (.003) df=3
		53.0%	8.2%	27.0%	11.9%	100.0%	
	고 등 학 교	72		36	7	115	
		62.6%		31.3%	6.1%	100.0%	
소 재 지	제주시	81	15	31	21	148	25.812*** (.000) df=6
		54.7%	10.1%	20.9%	14.2%	100.0%	
	북·남 제주군	66	6	57	10	139	
		47.5%	4.3%	41.0%	7.2%	100.0%	
	서귀 포시	94	5	34	14	147	
63.9%		3.4%	23.1%	9.5%	100.0%		
Total		241	26	122	45	434	
		55.5%	6.0%	28.1%	10.4%	100.0%	

현재 교과서에 나타난 회화표현의 내용에서 참고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55.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별로 도움이 안된다에 28.1%, 시정할 필요를 느낀다에 10.4%, 안좋다에 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좋다는 응답에 60.3%, 51.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5$ ). 중·고등학교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좋다는 응답에 53.0%, 62.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01$ ). 학교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제주도, 북·남제주군, 서귀포시 모두 좋다는 응답에 54.7%, 47.5%, 63.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001$ ).

<표 15> 교과서에 나타나 회화표현 내용의 이해 정도

구 분		이해된다	이해되지 않는다	모르겠다	Total	$\chi^2(p)$
성별	남	64	46	78	188	2.898 (.235) df=2
		34.0%	24.5%	41.5%	100.0%	
	여	67	53	118	238	
		28.2%	22.3%	49.6%	100.0%	
중·고등학교	중 학교	98	86	130	314	14.441*** (.001) df=2
		31.2%	27.4%	41.4%	100.0%	
	고등학교	33	13	66	112	
		29.5%	11.6%	58.9%	100.0%	
소재지	제주시	48	42	55	145	14.544** (.006) df=4
		33.1%	29.0%	37.9%	100.0%	
	북·남제주군	31	25	79	135	
		23.0%	18.5%	58.5%	100.0%	
서귀포시	52	32	62	146		
	35.6%	21.9%	42.5%	100.0%		
Total		131	99	196	426	
		30.8%	23.2%	46.0%	100.0%	

회화표현 내용의 이해정도에 관한 문항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46.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해된다가 30.8%, 이해되지 않는다가 23.2%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이해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중·고등학교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에 41.4%와 58.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001$ ). 학교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북·남제주군, 서귀포시 모두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에 37.9%, 58.5%, 42.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01$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학생들이 교과서에 나타난 회화표현 내용을 잘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 쉽고 이해력이 높은 회화의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16> 회화 표현 중 관찰표현에 있어 재미있는 부분

구분	소묘	정물화	한국화	풍경화	인물화	관화	상상화	추상화	기타	Total	$\chi^2(p)$	
성별	남	34	20	12	29	11	14	45	11	20	196	11.123 (.195)
		17.3%	10.2%	6.1%	14.8%	5.6%	7.1%	23.0%	5.6%	10.2%	100.0%	
	여	37	24	6	48	9	27	45	10	35	241	
		15.4%	10.0%	2.5%	19.9%	3.7%	11.2%	18.7%	4.1%	14.5%	100.0%	
중·고교	중학교	51	40	15	46	13	25	77	15	39	319	14.119 ** (.003)
		15.9%	12.5%	4.7%	14.3%	4.0%	7.8%	24.0%	4.7%	12.1%	100.0%	
	고등학교	20	4	3	31	7	16	13	6	16	115	
		17.2%	3.4%	2.6%	26.7%	6.0%	13.8%	11.2%	5.2%	13.8%	100.0%	
소재지	제주시	26	20	5	15	6	14	32	11	19	148	38.062 *** (.001)
		17.6%	13.5%	3.4%	10.1%	4.1%	9.5%	21.6%	7.4%	12.8%	100.0%	
	북·남제주군	28	12	6	28	5	7	23	4	28	141	
		19.9%	8.5%	4.3%	19.9%	3.5%	5.0%	16.3%	2.8%	19.9%	100.0%	
		서귀포시	17	12	7	34	9	20	35	6	8	
11.5%	8.1%		4.7%	23.0%	6.1%	13.5%	23.6%	4.1%	5.4%	100.0%		
Total	71	44	18	77	20	41	90	21	55	437		
	16.2%	10.1%	4.1%	17.6%	4.6%	9.4%	20.6%	4.8%	12.6%	100.0%		

회화에서 관찰 표현 중 재미있는 부분에 관한 질문에서는 상상화가 20.6%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풍경화가 17.6%, 소묘가 16.2%, 기타가 12.6%, 정물화가 10.1%, 관화가 9.4%, 추상화가 4.8%, 인물화가 4.6%, 한국화가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상상화가 24.0%, 고등학생의 경우 풍경화로 응답한 학생이 2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01$ ). 학교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의 경우 상상화로 응답한 학생이 21.6%, 북·남제주군은 소묘, 풍경화, 기타로 응답한 학생이 19.9%, 서귀포시는 23.6%가 상상화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상상화가, 여학생은 풍경화가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p > .05$ ). 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상상화를 재미있다고 응답하여 상상의 세계의 사고력을 풍부하게 하여 창의적인 표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7> 회화 표현 중 구상 표현에 있어 재미있는 부분

구 분		상상화	경험화	추상화	표현 기법	이야기 그림	기타	Total	$\chi^2(p)$
성별	남	96	18	22	38	13	10	197	43.727*** (.000)
		48.7%	9.1%	11.2%	19.3%	6.6%	5.1%	100.0%	
	여	58	9	30	92	30	23	242	
		24.0%	3.7%	12.4%	38.0%	12.4%	9.5%	100.0%	
중· 고등 학교	중학교	122	20	41	95	27	19	324	10.250 (.068)
		37.7%	6.2%	12.7%	29.3%	8.3%	5.9%	100.0%	
	고 등 학 교	32	7	11	35	16	14	115	
		27.8%	6.1%	9.6%	30.4%	13.9%	12.2%	100.0%	
소 재 지	제주시	44	11	20	42	18	13	148	22.299* (.014)
		29.7%	7.4%	13.5%	28.4%	12.2%	8.8%	100.0%	
	북·남 제주군	45	7	14	49	12	18	145	
		31.0%	4.8%	9.7%	33.8%	8.3%	12.4%	100.0%	
서귀 포시	65	9	18	39	13	2	146		
	44.5%	6.2%	12.3%	26.7%	8.9%	1.4%	100.0%		
Total		154	27	52	130	43	33	439	
		35.1%	6.2%	11.8%	29.6%	9.8%	7.5%	100.0%	

회화의 구상 표현 중 재미있는 부분에 관한 질문에서는 상상화로 응답한 학생이 35.1%로 가장 많았고, 여러 가지 표현기법이 29.6%, 추상화가 11.8%, 이야기그림이 9.8%, 기타가 7.5%, 경험화가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상상화로 응답한 학생이 48.7%, 여학생의 경우 표현기법으로 응답한 학생이 38.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01$ ). 학교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상상화로 응답한 학생이 29.7%, 44.5%로 가장 많았으며, 북·남제주군의 경우 여러 가지 표현기법으로 응답한 학생이 33.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5$ ). 중·고등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상상화, 고등학생은 여러 가지 표현기법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표 18> 미술시간의 작품 구상 및 완성 방법

구 분		선생님의 예시작품	교과서의 예시작품	주제에 따라서	마음대로 구상	Total	$\chi^2(p)$
성별	남	62	31	84	18	195	10.440* (.015)
		31.8%	15.9%	43.1%	9.2%	100.0%	
성별	여	55	24	133	30	242	10.440* (.015)
		22.7%	9.9%	55.0%	12.4%	100.0%	
중· 고등 학교	중학교	87	45	153	36	321	3.048 (.384)
		27.1%	14.0%	47.7%	11.2%	100.0%	
중· 고등 학교	고 등 학 교	30	10	64	12	116	3.048 (.384)
		25.9%	8.6%	55.2%	10.3%	100.0%	
소 재 지	제주시	28	29	75	16	148	15.095* (.020)
		18.9%	19.6%	50.7%	10.8%	100.0%	
	북·남 제주군	47	11	68	17	143	
		32.9%	7.7%	47.6%	11.9%	100.0%	
서귀 포시	서귀 포시	42	15	74	15	146	
		28.8%	10.3%	50.7%	10.3%	100.0%	
Total		117	55	217	48	437	
Total		26.8%	12.6%	49.7%	11.0%	100.0%	

미술시간에 작품 구상 및 완성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주제에 따라서 한다는 학생이 49.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선생님의 예시작품을 보면서 한다는 학생이 26.8%, 교과서의 예시작품에 따라서 한다는 학생이 12.6%, 마음대로 구상한다는 학생이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주제에 따라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43.1%와 55.0%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p < .05$ ). 학교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북·남제주군, 서귀포시 모두 주제에 따라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50.7%, 47.6%, 50.7%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p < .05$ ). 중·고등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주제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나,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표 19> 작품의 주제 선정 방법

구 분		어떤 대상으로	일반적인 주제	정해져 있는 주제	남의 작품의 힌트로	기 타	Total	$\chi^2(p)$
성별	남	83	27	53	29	6	198	3.066 (.547)
		41.9%	13.6%	26.8%	14.6%	3.0%	100.0%	
	여	84	41	73	35	10	243	
		34.6%	16.9%	30.0%	14.4%	4.1%	100.0%	
중·고등학교	중학교	113	54	100	50	7	324	14.327** (.006)
		34.9%	16.7%	30.9%	15.4%	2.2%	100.0%	
	고등학교	54	14	26	14	9	117	
		46.2%	12.0%	22.2%	12.0%	7.7%	100.0%	
소재지	제주시	49	28	50	17	4	148	18.033* (.021)
		33.1%	18.9%	33.8%	11.5%	2.7%	100.0%	
	북·남제주군	61	15	43	17	9	145	
		42.1%	10.3%	29.7%	11.7%	6.2%	100.0%	
서귀포시	57	25	33	30	3	148		
	38.5%	16.9%	22.3%	20.3%	2.0%	100.0%		
Total		167	68	126	64	16	441	
		37.9%	15.4%	28.6%	14.5%	3.6%	100.0%	

작품의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대상을 보고 자신이 선택한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정해져 있는 주제를 택한다는 학생이 28.6%, 일반적인 주제를 택한다는 학생이 15.4%, 남의 작품의 힌트로 한다는 학생이 14.5%, 기타가 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어떤 대상을 보고 자신이 택한다는 응답이 34.9%와 33.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1$ ). 학교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와 북·남제주군, 서귀포시 모두 어떤 대상을 보고 자신이 택한다는 응답이 각각 33.1%, 42.1%, 38.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5$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가 어떤 대상을 보고 자신이 택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나,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작품 주제를 어떤 대상을 보고, 정해져있는 주제에 따라서 표현하고 있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과 기법에 따라서 회화표현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표 20> 타인의 작품 평가 방식

구 분		실물과 답게 묘사	개성적 인 것	유명작 가의 것	느낌이 좋은 것	기타	Total	$\chi^2(p)$
성별	남	39	57	16	77	9	198	1.900 (.754)
		19.7%	28.8%	8.1%	38.9%	4.5%	100.0%	
	여	47	74	12	99	11	243	
		19.3%	30.5%	4.9%	40.7%	4.5%	100.0%	
중· 고등 학교	중학교	68	97	25	121	13	324	7.747 (.101)
		21.0%	29.9%	7.7%	37.3%	4.0%	100.0%	
	고 등 학 교	18	34	3	55	7	117	
		15.4%	29.1%	2.6%	47.0%	6.0%	100.0%	
소 재 지	제주시	36	41	7	58	6	148	14.513 (.069)
		24.3%	27.7%	4.7%	39.2%	4.1%	100.0%	
	북·남 제주군	28	48	4	57	8	145	
		19.3%	33.1%	2.8%	39.3%	5.5%	100.0%	
	서귀 포시	22	42	17	61	6	148	
14.9%		28.4%	11.5%	41.2%	4.1%	100.0%		
Total		86	131	28	176	20	441	
		19.5%	29.7%	6.3%	39.9%	4.5%	100.0%	

작품을 평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관한 질문에서는 자신이 보고 느낌이 좋은 것에 29.7%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개성적인 것에는 29.7%, 실물과 닮게 표현한 것에는 19.5%, 유명작가의 것에는 6.3%, 기타에는 4.5%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중·고등학생 모두 느낌이 좋은 것에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학교 소재지별로도 모두 느낌이 좋은 것을 택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모든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

<표 21> 색다른 작품에 대한 느낌

구 분		예술의 확대개 념으로 본다	나도 어떠한 변화 시도	시대의 산물로 생각	무시 한다	기타	Total	$\chi^2(p)$
성별	남	49	85	25	29	10	198	8.309 (.081)
		24.7%	42.9%	12.6%	14.6%	5.1%	100.0%	
	여	80	77	29	34	21	241	
		33.2%	32.0%	12.0%	14.1%	8.7%	100.0%	
중· 고등 학교	중학교	87	117	41	61	16	322	27.846*** (.000)
		27.0%	36.3%	12.7%	18.9%	5.0%	100.0%	
	고 등 학 교	42	45	13	2	15	117	
		35.9%	38.5%	11.1%	1.7%	12.8%	100.0%	
소 재 지	제주시	48	51	15	28	5	147	33.434*** (.000)
		32.7%	34.7%	10.2%	19.0%	3.4%	100.0%	
	북·남 제주군	33	54	26	11	21	145	
		22.8%	37.2%	17.9%	7.6%	14.5%	100.0%	
서귀 포시	48	57	13	24	5	147		
	32.7%	38.8%	8.8%	16.3%	3.4%	100.0%		
Total		129	162	54	63	31	439	
		29.4%	36.9%	12.3%	14.4%	7.1%	100.0%	

색다른 작품에 대한 느낌이 어떤가에 관한 질문에서는 나도 어떠한 변화를 시도해 보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36.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예술의 확대개념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29.4%, 저런 것도 작품인가 생각하고 무시한다는 응답이 14.4%, 시대의 산물이라는 응답이 12.3%, 기타가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나도 어떠한 변화를 시도해 보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36.3%, 38.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001$ ). 학교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북·남제주군, 서귀포시 모두 변화를 시도해 보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34.7%, 37.2%, 38.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01$ ).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나도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여학생의 경우 예술의 확대개념으로 본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지만,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표 22> 자화상 그리는 방법

구 분		자신과 닮게 그린다	개성적인 면을 표현한다	실물보 다 잘 그린다	특징을 변형해서 그린다	기타	Total	$\chi^2(p)$
성별	남	61	85	22	20	8	196	6.732 (.151)
		31.1%	43.4%	11.2%	10.2%	4.1%	100.0%	
	여	97	86	18	25	15	241	
		40.2%	35.7%	7.5%	10.4%	6.2%	100.0%	
중· 고등 학교	중학교	117	119	36	32	15	319	7.750 (.101)
		36.7%	37.3%	11.3%	10.0%	4.7%	100.0%	
	고 등 학 교	41	52	4	13	8	118	
		34.7%	44.1%	3.4%	11.0%	6.8%	100.0%	
소 재 지	제주시	70	49	10	12	8	149	18.723* (.016)
		47.0%	32.9%	6.7%	8.1%	5.4%	100.0%	
	북·남 제주군	46	62	9	19	8	144	
		31.9%	43.1%	6.3%	13.2%	5.6%	100.0%	
서귀 포시	42	60	21	14	7	144		
	29.2%	41.7%	14.6%	9.7%	4.9%	100.0%		
Total	158		171	40	45	23	437	
	36.2%		39.1%	9.2%	10.3%	5.3%	100.0%	

자화상을 그리는 방법에 관한 질문에서는 개성적인 면을 표현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6.2%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과 닮게 그린다가 36.2%, 특징을 변형해서 그린다가 10.3%, 실물보다 잘 그린다가 9.2%, 기타가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에서는 자신과 닮게 그린다가 47.0%, 북·남제주군과 서귀포시에서는 개성적인 면을 강조한다고 3.1%와 41.7%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났다( $p < .05$ ).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개성적인 면을 표현한다에 여학생은 자신과 닮게 그린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 그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p > .05$ ). 중·고등학교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모두 개성적인 면을 표현한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표 23> 색채 사용시 색 선택 방법

구 분		습관적으로 쓰는 색	대상의 색에 따른 색	대상과 동일한 색	내가 원하는 색	기타	Total	$\chi^2(p)$
성별	남	41	96	21	31	7	196	2.953 (.566)
		20.9%	49.0%	10.7%	15.8%	3.6%	100.0%	
	여	45	132	18	34	12	241	
		18.7%	54.8%	7.5%	14.1%	5.0%	100.0%	
중·고등학교	중학교	73	154	28	56	8	319	24.540** * (.000)
		22.9%	48.3%	8.8%	17.6%	2.5%	100.0%	
	고등학교	13	74	11	9	11	118	
		11.0%	62.7%	9.3%	7.6%	9.3%	100.0%	
소재지	제주시	38	71	13	24	3	149	9.050 (.338)
		25.5%	47.7%	8.7%	16.1%	2.0%	100.0%	
	북·남제주군	26	78	13	18	9	144	
		18.1%	54.2%	9.0%	12.5%	6.3%	100.0%	
서귀포시	22	79	13	23	7	144		
	15.3%	54.9%	9.0%	16.0%	4.9%	100.0%		
Total		86	228	39	65	19	437	
		19.7%	52.2%	8.9%	14.9%	4.3%	100.0%	

색채 사용시 색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에서는 대상의 색에 따라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52.5%로 가장 많았으며, 습관적으로 쓰는 색을 주로 사용한다고 19.7%, 생각 없이 사용한다고 41.9%, 대상과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대상의 색에 따라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48.3%와 62.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01$ ).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상의 색에 따라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나, 그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북·남제주군, 서귀포시 모두가 대상의 색에 따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조형의 요소인 선·형·색·표면구조 중 시각적으로 강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색채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선이나 형으로 이루어진 조형도 색채를 바꿈으로써 그 느끼는 감정은 여러 가지로 달라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다양하고 주관적인 색채사용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24> 가장 마음에 드는 시청각 자료

구분		비디오·TV	슬라이드	화집	오디오	파일자료	실물화상기	모형	컴퓨터	기타	Total	$\chi^2(p)$
성별	남	48	5	15		6	6	26	78	12	196	8.523 (.384)
		24.5%	2.6%	7.7%		3.1%	3.1%	13.3%	39.8%	6.1%	100.0%	
	여	60	8	31	2	6	6	27	78	23	241	
		24.9%	3.3%	12.9%	.8%	2.5%	2.5%	11.2%	32.4%	9.5%	100.0%	
중·고교	중학교	66	11	33	1	9	9	45	123	22	319	17.600* (.024)
		20.7%	3.4%	10.3%	.3%	2.8%	2.8%	14.1%	38.6%	6.9%	100.0%	
	고등학교	42	2	13	1	3	3	8	33	13	118	
		35.6%	1.7%	11.0%	.8%	2.5%	2.5%	6.8%	28.0%	11.0%	100.0%	
소재지	제주시	40	4	15	1	4	4	26	48	7	149	19.292 (.254)
		26.8%	2.7%	10.1%	.7%	2.7%	2.7%	17.4%	32.2%	4.7%	100.0%	
	북·남제주	32	6	12	1	6	4	9	60	14	144	
		22.2%	4.2%	8.3%	.7%	4.2%	2.8%	6.3%	41.7%	9.7%	100.0%	
	서귀포시	36	3	19		2	4	18	48	14	144	
25.0%		2.1%	13.2%		1.4%	2.8%	12.5%	33.3%	9.7%	100.0%		
Total		108	13	46	2	12	12	53	156	35	437	
		24.7%	3.0%	10.5%	.5%	2.7%	2.7%	12.1%	35.7%	8.0%	100.0%	

가장 마음에 드는 시청각 학습자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컴퓨터라고 응답한 학생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비디오·TV가 24.7%, 모형이 12.1%, 화집이 10.5%, 기타가 8.0%, 슬라이드가 3.0%, 파일자료와 실물화상기가 2.7%, 오디오가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컴퓨터로 응답한 학생이 32.4%, 고등학생은 비디오·TV로 응답한 학생이 35.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5$ ).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컴퓨터로 응답한 학생이 많으며, 제주시, 북·남제주군, 서귀포시 모두 컴퓨터로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나,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현재 제주도 중·고등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에 컴퓨터를 통한 영상수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OHP자료를 통한 수업 또한 매 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의 수업형태는 지금까지의 수업 형태에서 다양한 자료를 통한 수업의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이에 미술 수업 형태도 새로운 형태를 개발하여 도입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표 25> 미술시간 재료 준비 방법

구 분		문방구 재 료	주변 재료	다른 재료	Total	$\chi^2(p)$
성 별	남	139	45	9	193	1.641 (.726) df=2
		72.0%	23.3%	4.7%	100.0%	
	여	181	49	10	240	
		75.4%	20.4%	4.2%	100.0%	
중·고 등학교	중 학 교	233	70	12	315	1.022 (.600) df=2
		74.0%	22.2%	3.8%	100.0%	
	고등학교	87	24	7	118	
		73.7%	20.3%	5.9%	100.0%	
소재지	제 주 시	105	38	6	149	3.776 (.437) df=4
		70.5%	25.5%	4.0%	100.0%	
	북·남 제 주 군	114	24	6	144	
		79.2%	16.7%	4.2%	100.0%	
서귀포시	101	32	7	140		
	72.1%	22.9%	5.0%	100.0%		
Total		320	94	19	433	
		73.9%	21.7%	4.4%	100.0%	

미술교육시간에 재료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문방구에서 똑같은 재료를 산다는 학생이 73.9%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에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가 21.7%, 다른 재료를 이용한다가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여학생 모두 문방구에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중·고등학생별로,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 살펴봐도 모두 문방구에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 표현 학습에는 물론 재료를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자유롭게 개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료의 양을 제한하거나 종류를 제한하는 등 어떤 조건을 설정하여 지도하면 보다 예민한 조형 감각을 기를 수 있다. 또 같은 주제라도 한 학급을 몇 분단으로 나누어 분단마다 각각 다른 재료를 가지고 제작하게 하고 그 완성된 작품을 한데 모아서 함께 감상하면 다양한 재료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료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창조 작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 IV. 회화지도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방안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은 미술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미술교육의 목적은 하나의 교과로서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전인적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학생의 성장에 따른 발달 단계가 가지는 지각 및 창의성의 관계를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학생들은 개인에 따라 성장의 속도, 소질, 환경, 개성, 의욕 등이 서로 다르다. 중등학교 학생의 미술표현의 특징은 청년기로 들어서는 성장기에 있는 연령의 단계이므로 이 시기에는 심리적 변화가 강하게 나타나며, 비판 의식과 창작의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각 세계와 경험을 결합시켜 주관적 표현을 하게 되며, 자기의 개성을 발견하고 나름대로 멋을 부릴 수 있는 예술적 재능이 꽃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신 발달 성장을 보게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보겠다.

청소년들은 지적 성장이 학생들의 흥미와 태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그들의 지각된 능력은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그들 또래들 간에 일정한 수준에서 영원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기본적인 정신 발달의 과정 대부분이 청소년기에 안정된다 하더라도, 청소년기 전 기간을 통하여 축적된 능력이나 적성을 보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인다. 추상적 추리력과 같은 더욱 복잡한 정신활동은 20세기 초까지도 계속 발달한다. 더욱이 학습은 학습 능력이 안정되어질 때와는 상관없이 계속됨이 분명하다. 계속된 지적 세련, 개념의 발달, 심화, 증가, 그리고 더욱 복잡한 인지 구조 형성, 새로운 기능과 방법의 학습 등이 청소년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발달하는 기능의 일부이다. 이와 같은 지적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무한하게 발달되는 지적 능력에 있어서, 기능과 방법의 측면과 관련되는 학습 활동의 개입은 더욱 지능을 조작하고 기능화 시키게 될 것이다.<sup>6)</sup>

---

6) 朴相郁, 「中等學校 美術教育에서 美的 向上을 위한 研究」,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논문, 1966, p.10.

## 1. 자기 표현에 따른 미술 수업

성장기 청소년들은 그 연령에 맞는 그들의 문화가 있으며, 그들의 연령에 맞는 미술 표현이 있다. 미술교육에서도 이것을 극대화시켜 줌으로써 다음 단계의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각이나 관점, 요구, 정서들은 시각 언어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자기 표현이라 하며, 자기 표현활동은 인간 교육의 필수 과정인 동시에 자기 전달과 의사 소통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자기 표현은 학생 개개인의 욕구와 관심을 생각하고 경험한 모든 것의 반영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여줄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학생들 상호간의 이해를 높여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실제 생활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표현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스스로 찾을 수 있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sup>7)</sup>

김춘일은 그의 저서에서 미술교육이 교육받는 대상에 따라 성격의 변화를 강조하며, 미술교육은 첫째, 예술 교육적 관점을 취해야한다. 둘째, 보통 교육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 셋째, 자립적인 기능을 갖는다.<sup>8)</sup> 라고 하여 미술교육의 본질의 핵심을 잘 지적하였다. 미술교육의 표현(창조) 과정과 감상(가치) 과정 자체를 인격 형성의 과정과 동일시하고, 미술의 제반 원리를 교육의 원리로 채택하려는 입장을 취해 미술을 통해 생산되는 작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의 활동 과정에 중점을 두어 심미적 욕구와 그것의 충족 그리고 교양적인 심미안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 입장은 일반 보통 교육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sup>9)</sup>

현대 미술교육은 인간의 심상적(心象的) 내면성과 기능적 외면성을 도야시키는 인간 형성 교육을 중시한다. 특히 인간 생활의 본질적인 요소인 창의력(creativity)을 계발시켜 생동하는 정신력과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인격 형성 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대 미술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창의적 자기 표현'과 '자유로운 개성의 표현력'을 보면 창의적 표현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필요로 하며, 이는

7) 전만성, 「고등학생의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수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석사 논문, 1996, p.16.

8) 金春一, 「美術教育論」, 서울:弘盛社, 1988, p.19.

9) 教育部, 「고등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1995, p.144.

그들의 삶을 생동하게 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창의적 사고는 독창적(originality) 사고를 의미한다. 남과 다르고 앞의 것과 다르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산출해 내려는 생산적이고 참신한 사고를 뜻한다. 이는 어떤 법칙이나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질서를 찾아내는 개방적이고 유창(fluent)한 사고이다. 그런데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 자기표현력과 자기생활에 대한 즐거운 경험, 독자적인 일 중심, 자기 표현력과 자기 생활에 대한 즐거운 경험, 독자적인 일 중심, 자료 수집과 분석 및 조작적 활동, 실험과 문제 해결 중심 등의 학습을 중시해야 한다.<sup>10)</sup>

미술이란 모든 인간적 형성의 기본이요 관문인 감성에 의존하는 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연에서 이루어지기에 다른 어느 분야보다는 가치 있는 인간을 형성하는 자연스러운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자기 표현 활동의 목표를 제시<sup>11)</sup>하면 다음과 같다.

- (1) 잠재된 표현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
- (2)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일
- (3) 의도를 표현으로 전달하는 일
- (4) 의도를 시각 언어로 표현하는 일
- (5) 자신과 미술의 관계를 알아보는 일

적극적인 자기 표현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의식과 생활, 발달 상황에 맞는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예술적 위기의 단계로 전보다 떨어지면서 다른 활동으로 분산되고, 비판적 인식과 환경에 대한 지각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표현에 자신이 없어지고, 다른 친구의 작품을 비판하려 한다. 이 시기는 개인 성격 유형이 분화되는 시기로 감상 능력의 특성보다 논리적인 특성이 두드러지는 촉각형인 학생들은 개성적인 예술에 몰입하기도 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

10) 金三郎, 전계서, p.35.

11) 로웬펠트 외 1인,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미진사, 1993, p.252 재인용

## 2. 다양한 재료 활용 지도법

학습에 필요한 재료는 그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교사와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재료를 선택하는 방법과 어떤 재료의 특질에 적합한 내용으로 표현하는 두 가지 지도 방법이 있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재료의 선택을 자유롭게 개방하여 표현 내용(구상, 아이디어)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과 재료의 특질에 적합한 내용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은 앞의 것보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표현을 유도할 수 있다. 표현지도에 있어서는 항상 재료와 기법과 제재가 삼위일체 되어 조화를 이룰 때 학생들의 감정이나 개성도 잘 나타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표현 기법과 표현재료, 표현소재를 사용하게 하고 흥미유발을 시킴으로써 스스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단순한 기교적인 면에서의 지도보다도 표현 원리를 터득하게 하고 재료의 특성을 살려 솔직한 자기 세계의 표현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창의성을 기르는 회화 활동은 학생 개개인의 문제 해결의 사고력 신장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sup>12)</sup>

표현 학습에는 물론 재료를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자유롭게 개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료의 양을 제한한다든지 종류를 제한하는 등 어떤 조건을 설정하여 지도하면 보다 예민한 조형 감각을 기를 수 있다.

또 같은 주제라도 한 학급을 몇 분단으로 나누어 분단마다 각각 다른 재료를 가지고 제작하게 하고, 그 완성된 작품을 한데 모아서 함께 감상하면 다양한 재료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감상 지도는 다른 학생의 작품이 자기의 의도와는 어떻게 다르며 그것들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비판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어서, 재료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창조 작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또 교사의 교수-학습 계획이나 의도에 따라 학생들에게 재료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가

---

12) 李今玉, 「中等學校 美術教育의 繪畫教育에 관한 研究」, 흥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p.61.

있다. 자신의 이미지를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의 탐구나 기법의 극복은 새로운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조형에 있어 재료의 선택과 기술적인 극복은 표현 활동에 있어 중요하게 대두되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다양한 재료에 의한 이미지 표출은 자발적인 표현태도를 갖게 하며 재료가 갖는 조형적, 상징적, 연상적 가치에 대한 탐구과정은 이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자극시키는 요인이 되어 창의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sup>13)</sup>

<표 26> 학습의도에 따른 재료활용 지도방법

학습 의도	활용 재료	지도 방법
기초적인 경험 표현	연필, 콩테, 파스텔, 빨래비누, 발포성 식고봉	심상적이고 섬세한 표현한 지도
자유로운 표현	물감, 포스터 칼라, 찰흙	대담한 표현지도
흥미를 북돋우는 표현	두꺼운 종이, 스크래치보드, 스티로폼, 동판 아크릴판	새로운 느낌을 중심으로 한 재료의 표현 지도
정서 안정 표현	핑거 페인팅, 찰흙, 종이죽	자유롭고 촉각적이며 전신을 움직여 표현하도록 함
연상력을 표현	폐품, 조개껍질, 나무뿌리, 고목	발견의 즐거움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장식적 욕구의 표현	색지, 형질, 색테이프	변화와 조화에 대한 지도
개념을 파괴시키는 표현	마블링, 데칼코마니,	표현의욕과 용기 고취, 행동적 조작적 표현지도
독창력의 표현	짚, 보릿짚, 비닐, 철사, 빈병, 종이접기	착상과 착상의욕을 고취토록 함
동적인 기구의 표현	고무밴드, 구슬, 동근기 등	

13) 李寧珍, 「美術教育에 있어서 創意的인 動機誘發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9, p.61.

### 3. 창의적 발상지도

현대의 미술교육은 전통적인 미술교육에 비하여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미술교육은 학생들의 독자적인 개성의 표현과 자아 실현을 위한 창의성의 계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 분방한 학습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성적인 표현과 창조적인 발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시각 예술인 조형 표현은 시각을 통하여 이지(理智)의 저편에서부터 비롯되는 직관의 영상을 조형화하는 작업이다. 개체인 작가가 시각을 통하여 체험한 의식을 실현하고자 미지의 심연에서 고유한 생명을 포착하려고 모색할 때 어떠한 소재와 방법, 어떠한 양식과 시각 언어(visuar language)를 동원할 것인가 망설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작가의 개성적인 창의성이 발휘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적인 개성의 발현과 창의적인 사고의 발상은 어떤 개념이나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질서를 찾아내는 개방적이고 유창한 것이다.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력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정신이 생동하도록 해야 한다. 창의력(creativity)이란 그 본래가 직관적인 힘이기 때문이며, 그 힘은 지각(perception)과 감각(sensation)의 예민도와 그러한 활동 영역의 범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어떠한 속박이나 억압, 강제, 규제보다는 자유분방한 가운데서 적극적인 활동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미술교육에서 자유란 표현 방법의 자유와 표현 과정의 자유를 둘 다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유분방한 학습을 통한 창의적 발상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성격,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지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발상’이란 그 학생 고유의 창의적인 이미지를 구상하는 것을 뜻한다. 작업할 작품의 이미지를 구상한다는 것은 그 작품의 소재나 주제, 표현형태, 제작방법 등에 대한 생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형상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창의적인 발상의 지도 방법은 명상적인 상태에서 이미지가 자연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방법과 의도적으로 이미지의 조작과정을 거쳐서 떠오르게 하는 인위적 발상법을 들 수 있다.

첫째, 자연적 발상은 연상(聯想, association)<sup>14)</sup>에 의해서 우연히 떠오르게 하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다듬거나 재구성하여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 형태로 조직하는 이른바 상상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지도 방법이다. 이 지도 방법에는 아무런 자극 조건 없이 명상을 통하여 자유롭게 작품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낙서하듯이 그려보게 하는 방법이 있다.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구사하던 자동기술법(自動記述法)이 이에 속하는 것이다. 또 사진의 한 부분이나 입체물의 과편, 돌 조각 등의 시각단서(視覺端緒)를 보고 떠오르는 연상을 다듬고 구성해서 하나의 상징적 이미지를 창조해 내게 하는 지도 방법이 있다. 화가 뒤뷔페(J. Dubuffet)가 대팻밥이나 톱밥, 낙엽이나 나비의 날개 등을 보고 떠오르는 연상을 포착하여 그림으로 표현했던 일이나, 조각가 무어(H. Moor)가 해변의 조개껍질과 조약돌, 뼈 등을 관찰하고 생각하는 동안에 불가사의한 비약적 상상으로 창의력을 발휘했던 일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이 학습 방법은 미술 활동의 발상에서 시작하여 감상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전개하여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인위적 발상법은 단서가 되는 하나의 이미지를 선정하고, 이것을 의도적인 여러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유기적이고 완전한 표현적 의미를 갖는 독립된 형태로 완성하는 조작적인 지도 방법이다. 이러한 조작적 발상의 지도 방법으로서 오스본(Osborn, A.F)의 창의적 사고의 지도법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sup>16)</sup>

① 주어진 조건, 의미, 형상, 물체 등을 여러 가지 사태나 입장에 ‘적용’시켜 보면서 재미있고 독특한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찾게 된다.

② 주어진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수정하여 창의적인 것으로 전환시킨다.

③ 주어진 조건, 형상, 아이디어 등을 다른 것으로 바꿈으로써 참신한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얻어낸다.

④ 주어진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지극히 크게 확대하거나 작게 축소시킨다든지 혹은 어떤 부분을 더하거나 뺌으로써 재미있고 독특한 형태를 창조하게 한다.

14) B. Ghiselin편, 이상섭 역, 「예술창조의 과정」, 연세대 출판부, 1964, p.96~98

15) 金三郎, 전계서, p.158

16) Osborn, A. F편, 신세호 역, 「상상공학」, 서울:배영사, 1968.



⑤ 주어진 사물이나 형상의 조직 형태 및 순서를 해체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얻어낸다.



## V. 결 론

미술교육은 학생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르는 다양한 흥미와 욕구를 만족시켜주면서 직관적 감성을 길러주고, 조형능력을 일상 생활에 활용하여 자기의 생활을 아름답고 합리적으로 꾸며나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결국 미술 교육에서는 개성적 표현을 중시해야 하며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창의성을 길러 전인적인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교육현장은 시설의 부족, 교사의 자율성 제한, 그리고 부모들의 무관심과 부모들의 가중적인 기대로 인한 학생의 진로선택권 협소 등의 문제를 실제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회화 실기 지도에 있어서 관찰력 표현과 구상 표현과 연계성 있는 실기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관찰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감정과 의식의 변화를 정리하는 추상 표현 능력이 구체화된 과정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급적 다양한 표현 기법과 표현 소재를 사용하게 하여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서 스스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동기유발을 가지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단순한 기교적인 면에서의 지도보다는 표현 원리를 터득하게 하고 재료의 특성을 살려 솔직한 자기 표현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창의력을 기르는 회화 활동은 학생 개개인의 문제 해결의 사고력 신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회화표현이 시각적인 학습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수업은 감상 지도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감상용 슬라이드, VTR, 인터넷자료, 화집 등 각종 재료를 제작 도구활용 하거나, 미술관, 박물관, 전시장 등의 견학을 통해 감상 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미술교육과정의 학습지도에 관한 서적이거나 참고자료를 잘 활용하여 미술교사의 이론을 위한 현직연수와 자기연구가 필히 실시되어야 하겠다.

넷째, 다양한 그리기 지도자료를 교사가 직접 작성 활용하면 학생의 흥미를 유도

하고 미술에 대한 표현의욕과 창조적 표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권장한다.

다섯째, 그리기 지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실기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나친 고교입시를 위한 이론 중점 지도에 벗어나 창조력 향상을 위한 실기 학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겠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 정(1995), 「미술 교육론」, 해동출판사.  
김삼량(1992), 「미술 교육 개론」  
김영학(1999), 「미술교육」, 대완도서 출판사.  
이운구(1998), 「미술실에서 미술관까지」 두산동아  
이돈희(1998),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 현대문학.  
김춘일(1988), 「미술교육론」, 홍익사.  
로웬펠트 외 1인(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B. Ghiselin편, 이상섭 역(1964), 「예술창조의 과정」, 연세대 출판부.  
Osborn. A. F편, 신세호 역(1968), 「상상공학」, 배영사.

### <논문>



- 李寧珍(1989), 「美術教育에 있어서 創意的인 動機誘發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朴相郁(1996), 「中等學校 美術教育에서 美的 向上을 위한 研究」,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李今玉(1994), 「中等學校 美術教育의 繪畫教育에 관한 研究」,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李寧珍(1989), 「美術教育에 있어서 創意的인 動機誘發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李丙仁(2000), 「中學校 美術教育의 實際와 改善에 관한 研究」,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오승익(2000), 「중등미술교과 실기 평가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전만성(1996), 「고등학교의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수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기타>

임현진 「미술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김 태, 최기원, 문상렬, 「미술교사용 지도서」, 금성출판사

교육부(1995), 「고등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교육부(1997), 「제7차 교육과정 총론」

제주도교육청(2000), 「제7차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실제」



<abstract>

# A Study on Extension of Originality in Secondary Grade's Arts Education (Focusing on expression of paintings)

Kim, Ok-Jin

Major in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Directed by Prof. Kim, Bang-Hee

Extension of originality is a necessary matter in learning painting from the side of nature of arts, and this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painting expression activity among various expression activities.

Today's arts education makes much of originality, but the courses are actually unsatisfying for extending originality. Moreover, in the educational real spots, classes are making too much of the intellectual area, consequently, students don't have learning activities to severally study and find out things, rather, they have been intent on conveying knowledge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entrance exams, according to classes for putting-into-knowledge by teachers.

In arts education, creative work is a formative activity that is different from formless think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cretely get hold of working courses according to their order. And the stage of motivation is importantly treated in advance, because it expresses individual desire of creation. Improvement of originality is done by means of particular motives and willing creative activities.

Art education is expected to take its original role of aspiring to

education for the whole man, and this study tried to illuminate the original mission of education by means of arts from the viewpoint of arts education.

This study analyzed collected data by a questionnaire survey that was made to get hold of actual conditions of the present arts education, find out and improve problem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The study subjects wer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district of Jeju-do.

The study results of this time's survey tell that the arts education should extend originality of students.

In addition, as the education effect should enable students to creatively do produce works by exciting spontaneity. Without particular motives or experiences, originality cannot develop easily. The education that helps students to develop this ability is one that extends students' originality. In order to activate this kind of arts education increasing originality, individual thoughts & experiences and humane values should be esteemed.



With respect to study results, the present painting education has been limited to the level of handing down non-individual techniques only. It means that the present education is neglecting instructing students the subjective or creative ways to express their feelings and thoughts, which is called an instruction for expressing esthetical sense and emotions.

It is expected that this kind of study through experiments could be used in actual educational spots, furthermore, would be helpful for students' extending originality.

-----  
※ This thesis 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on May, \_\_\_\_\_, 2003, for the degree of Master.

## 설 문 지

\* 중등 미술교육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연구(학생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학교 공부에 열중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현행 중. 고등학교 미술교육의 실태를 파악 분석함으로써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자 작성된 설문지입니다. 여러분의 소견을 성의껏 응답해 주신다면 미술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자료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연구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음을 밝혀 둡니다.

감사합니다.

 2002.9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욱 진

\* 설문작성자와 관련된 사항에 ○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학교현황    ① 공립    ② 사립  
                  ① 남학교    ② 여학교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3. 소재지    ① 제주도    ② 북제주군, 남제주군    ③ 서귀포시
  
4.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1. 현재 여러분이 수업하고 있는 미술 시간은 어떻습니까?

- ① 즐겁다 ② 보통이다 ③ 즐겁지 않다

2. 미술시간이 즐겁다면, 즐거운 이유를 아래에서 한 가지 고르세요.

- ① 다른 과목보다 적성에 맞아서 ② 점수를 잘 주어서  
③ 실기가 많아서 ④ 내용이 쉽고 재미있어서

3. 미술시간이 즐겁지 않다면 그 이유를 아래에서 한 가지 고르세요.

- ① 준비물이 많아서 ② 경제적 부담이 생겨서  
③ 평가에 불만이 있어서 ④ 실기를 잘 못해서 ⑤ 기타 다른 이유로

4. 미술학습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 ① 창의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②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 미적감각을 길러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④ 정서순화에 도움이 된다.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⑤ 기타( )

5. 미술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 ① 창의성(독창성, 개성) ② 새로움 ③ 작품제작의 성실성  
④ 작품의 완성도 ⑤ 준비물의 준비성 ⑥기타

6. 선생님이 평가할 적에 중요시하는 것은 어떤 내용 같습니까 ?

- ① 창의성(독창성, 개성) ② 그림을 잘 그린 그림(표현력)  
③ 작품제작의 성실 ⑥ 선생님과 친해서 ⑦기타

7. 미술은 인성발달과 창의성 개발을 돕는 필수 교과이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4. 회화 표현 중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

(관찰표현 중)

- ① 소묘    ② 정물화    ③ 한국화    ④ 풍경화    ⑤ 인물화  
⑥ 관화    ⑦ 상상화    ⑧ 추상화    ⑨ 기타

15. 회화 표현 중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

(구상 표현 중)

- ① 상상화    ② 경험화    ③ 추상화    ④ 여러 가지 표현기법  
⑤ 이야기그림    ⑥ 기타(            )

16. 미술시간에 작품 구상 및 완성을 어떤 과정을 거쳐 하십니까?

- ① 선생님의 예시 작품을 보면서  
② 교과서의 예시 작품을 보면서  
③ 제시된 주제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  
④ 주제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구상



17. 작품을 할 때 주제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 ① 어떤 대상을 보고 자신이 택한다.  
② 일반적인 주제를 택한다.  
③ 선생님이 정해 주는 주제에 따른다.  
④ 남의 작품에서 힌트를 얻어 정한다.  
⑤ 기타 (                            )

18. 작품을 볼 때 어떤 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 ① 실물과 닮게 묘사한 것    ② 평범하지 않고 개성적인 것  
③ 유명작가의 것            ④ 자신이 보고 느낌이 좋은 것  
⑤ 기타(                            )

19. 실험적인 색다른 작품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 ① 예술의 확대개념으로 본다.
- ② 나도 어떠한 변화를 시도해 본다.
- ③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 ④ 저런 것도 작품인가 하고 무시해버린다.
- ⑤ 기타( )

20. 자화상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립니까?

- ① 자신과 닮게 그린다.    ② 개성적인 면을 표현한다.
- ③ 실물보다 잘 그린다.    ④ 특징을 변형해서 그린다.
- ⑤ 기타 ( )

21. 색채 사용 시 색은 어떻게 씁니까?

- ① 습관적으로 쓰는 색을 주로 쓴다.
- ② 대상의 색에 따라 쓴다.
- ③ 대상과 똑 같이 쓴다.
- ④ 생각 없이 쓴다.
- ⑤ 기타( )



22. 가장 마음에 드는 시청각 학습자료는 어떤 것입니까?

- ① 비디오.TV    ② 슬라이드    ③ 화집    ④ 오디오    ⑤ 파일 자료
- ⑥ 실물 화상기    ⑦ 모형    ⑧ 컴퓨터( 인터넷)    ⑨ 기타

23. 학교미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성의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24. 미술시간에 재료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 ① 문방구에서 똑같은 재료를 산다.
- ② 주변에 있는 재료를 찾아 쓴다.
- ③ 다른 재료를 이용한다

※설문지에 응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